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암태도에서 만난 순비기나무

7년 전 국내 식물 연구기관으로부터 한국의 자생 약용식물을 그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나는 4년간 우리나라 자생 약용식물 80여 종을 직접 관찰해 그림으로 기록했다. 식물 중에는 갯기름나물, 갯방풍, 갯완두 등 '갯'이 들어가는 이름이 많았고, 이들을 관찰하기 위해 나는 산이 아닌 바닷가를 오갔다.

내가 식물을 보러 가는 곳은 주로 산과 식물원이지만 때때로 해안 사구와 갯벌, 섬으로 향하기도 한다. 바닷가에도 식물은 살기 때문이다. 물론 바닷가라고 산보다 결코 수월하지만은 않다. 바닷가로 향할 때마다 나는 만반의 준비를 한다. 모자와 여벌 옷도 챙기고, 발등 높이 올라오는 신발도 신는다. 바닷가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도 강하며 모래 틈에 발이 쑥쑥 빠지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 사는 식물은 산에 사는 식물과 형태도 크게 다르다.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강한 바람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 작은 키에 누워 자라며, 염분이 잎에 스며들지 않고, 뜨거운 태양에 견딜 수 있는 매끈하고 두꺼운 잎을 갖고 있다. 입자 틈이 넓은 모래땅에서 수분,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요령도 지녔다. 다시 말해 바닷가란 우리 주변 식물이 살기에는 척박한 환경이며, 그런 땅에서 사는 식물에게는 산과 화단에 사는 식물에게는 없는 비범함이 있다. 그 비범한 능력 중 하나는 염분에 대한 적응력이다.

토양의 염분, 다시 말해 소금기는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식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일부 식물은 염분 스트레스에 견디는 내염성이 있어 일반 식물은 결코 살 수 없는 염류 토양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들을 염생식물이라 한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60~100여 종의 염생식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대부분 서남해안에 분포한다.

염생식물은 염분에 저항하기를 넘어, 염분을 에너지로 활용하고 체내 기관에 저장하기도 한다. 약용식물로 널리 알려진 퉁퉁마디는 두꺼운 잎과 줄기 안에 염분이 든 물을 저장해 둔다. 퉁퉁마디의 또 다른 이름은 한자 '짤 함'(鹹)의 함초다. 염분에 대한 저항성이 이 식물의 정체성인 셈이다.

바닷가에 사는 약용식물을 관찰하기 위해 찾은 암태도에서 보라색 꽃을 한창 만개한 염생식물, 순비기나무 군락을 만났다. 조금은 독특한 이들 이름은 제주도 방언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진다. 숨을 비우고 물에 들어가는 해녀들이 자주 겪는 잠수병에 효과적이라 숨비기나무, 순비기나무로 불리게 되었다고 추측한다.

이들은 자갈이 유난히 많은 모래 땅에서도 내 키만큼 크게 자란 데다 꽤 두꺼운 가지를 키워 냈다. 순비기나무가 모래, 자갈 심지어 바위가 있는 땅에서도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 생장할 수 있는 것은 뿌리가 옆으로 깊고 넓게 뻗어 입자가 큰 땅에 뿌리를 고정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암태도의 주민분이 말씀하시길 이들은 바닷물에 침수된 후에도 복원이 빠르다고 한다. 이토록 연한 보라색 꽃과 은색에 가까운 연녹색 잎의 소박한 나무가 바다와 땅의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제 길을 지나왔음이 놀라웠다.

순비기나무 꽃을 보고 두어 달이 지나 암태도를 다시 찾았을 때, 이들 잎은 연주황색과 연보라색으로 단풍이 들었다. 낙엽이 아까울 만큼 아름다운 색상 팔레트였다. 바닷가에 사는 약용식물 기록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암태도에 가지 않게 되었지만 종종 이들을 소재로 한 화장품이 나왔다거나 약용 효과가 연구되었다는 뉴스를 본다.

2050년 지구의 인구는 97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식량 생산량이 현재보다 70%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한다. 반면 지구 온난화와 건조에 의해 2050년 기존 식량 경작지의 50% 이상이 염류화될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결국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염생식물에 대한 연구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전북 김제시에 국립 새만금식물원을 조성 중이다. 앞으로 우리에겐 순비기나무와 그 밖의 우리나라 자생 염생식물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을까 싶다.

〈식물 세밀화가〉

의료칼럼

족부 질환

김 재 영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참여했던 운동은 바로 '걷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1년간 한 번이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체육 활동으로 걷기(48.8%)가 가장 많았다. 요즘같이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에는 운동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산책이나 꽃구경 등을 즐기는 이들이 부쩍 는다. 하지만 무지 외반증과 족저 근막염 등 족부 질환 때문에 걷는 게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이들도 많다.

무지 외반증과 족저 근막염은 주로 중장년층 여성이 많이 걸린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무지 외반증으로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 5만 4746명 중 40~60대 여성이 3만 194명으로 무려 55%를 차지했다. 족저 근막염의 경우도 전체 환자 26만 5346명 중 약 30%(7만 9478명)가 40~6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은 우리 몸의 상·하체의 하중을 견디면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 발의 피로나 통증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무지 외반증과 족저 근막염의 경우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기도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무지 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의 관절이 바깥쪽으로 심하게 돌출되면서 둘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져 변형된 상태다. 유전적으로 평발이거나 볼이 넓적한 발에 생기기 쉽지만 하이힐 등 볼이 좁고 굽 높은 신발을 자주 이용한 경우 발생 위험성이 높다.

가장 흔한 증상은 돌출 부위의 통증이다. 돌출 부위가 지속적으로 신발에 자극을 받으면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한다. 걸을 때 엄지발가락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에 쪽에 힘을 싣는 경우가 많다. 이때 두세 번째 발가락의 발바닥 부분에 굳은살이 생기고 통증이 오기도 한다. 심한 경우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과 겹쳐지거나 관절 탈구가 생길 수 있다. 또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발가락뿐만 아니라 발 부위나 허리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

무지 외반증은 발가락 변형이 심하다 하더라도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함의 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치료를 달리한다. 통증이나 불편함이 심하지 않다면 변형을 악화시키는 신발을 착용하지 않고 볼이 넓고 부드러운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엄지발가락의 돌출 부위나 나머지 발가락 아래가 자극되지 않게 신발 안에 교정 깔창을 넣는 방법도 있다. 만약 변형의 정도가 심하거나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통증이 크다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수술을 통해서는 돌출된 부위의 뼈를 깎고 치우친 뼈의 각도를 교정하며 주변의 근육과 인대 등 조직을 늘려 준다.

족저 근막은 발뒤꿈치부터 발바닥 앞쪽까지 이어져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발을 들어 올릴 때 도움을 주는 등 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평소에 운동을 잘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거나 장거리 달리기 등 발을 과하게 사용할 경우, 또 딱딱한 바닥에서 발바닥에 충격을 주는 운동을 자주 하다 보면 족저 근막이 반복적으로 미세한 손상을 입어 근막에 염증이 생긴다. 또 장시간 오래 서 있거나 쿠션이 없는 구두나 하이힐 등을 즐겨 착용하다 보면 족저 근막에 비정상적인 부하가 지속적으로 가해져 염증이 생기기도 한다.

보통은 걷거나 발을 사용할 때, 휴식 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발바닥을 쭉 폈을 때 심한 통증이 생겼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다시 줄어들기도 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 가만히 서 있어도 통증이 생기고, 양쪽 발 모양이 달라지기도 한다.

족저 근막염은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면 보존적 치료로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로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치료하면 된다. 재발을 막기 위해선 무리한 운동량이나 잘못된 운동 방법, 불편한 신발 등 원인을 찾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족저 근막과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 주는 것도 좋다.

기 고

장애인 직업활동 유지 응원하는 콘서트를 열며

정 찬 훈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장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장애인들의 취업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그리고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정말 그럴까.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30여년 넘게 운영되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적잖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부과금 등의 패널티로 인하여 상당히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일단 장애인들의 취업률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부진하다. 설령 취업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저소득에 단순 업무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있다. 취업 후를 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장애인들에겐 취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직업 활동유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장애인 관련 정책과 사업이 고용에만 맞춰졌을 뿐 취업 후 유지·관리에까지 손을 넣지 못했던 상황이다. 그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법에 의거해 2019년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게 '장애인 근자로지원센터'다.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그때 서울, 부산 등과 함께 출범했다. 장애인근로자들이 늘어났고 취업 후 직장 내 부당해고·임금체불·성희롱 등의 문제에 노출되었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지원해줄 기관이나 기구가 그 때까지 없었다.

필자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손영호)와 함께 여러 경로를 통해 중앙정부에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이어 예산확보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우선 세 군데를 연데 이어 이듬해인 2020년 대구·경기·대전 등에까지 지원센터 문을 여는 개가를 올렸다.

앞서 밝혔듯 장애인 고용은 취업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후 직업활동의 유지·관리가 관건이다. 광주센터는 변호사(1인) 노무사(1인)와 광주, 전남 · 북, 제주 등을 아우르며 법률자문·심리치료·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 3년여간 2천여건에 달하는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 후엔 진위파악과 중재에 들어간다. 문제해결이 안 될 경우 고용노동부나 인권위에 고발하지만 고발만이 정답이 아니다. 광주센터는 '혼자 힘들어 하지 마세요'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장애인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직장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다.

필자의 큰 아들은 의료사고로 장애를 입었다. 30년 전 세상에 태어날 때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변으로 언어장애와 신병정리를 스스로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장애인 관련 정책과 사업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내 아이만을 위한 돌봄에 그치지 않고 그 아이가 살아갈 사회의 분위기를 올바르게 조성한다는 마음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무려 4년 가깝게 장애인의 직업 유지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들까지 이 센터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한다.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로 지난 해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참석한 이들이 다들 좋아했다. 내년에도 꼭 개최하겠다고 다짐하였고 예산확보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해 또 콘서트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14일 '행복한 동행, 그대들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즐겁다.

콘서트 개최엔 후원회의 도움이 컸다. 콘서트는 지원센터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까닭에 후원회(회장 양오열 동진기업대표)와 함께 나섰다. 센터 설립도, 힐링콘서트도 모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힐링콘서트엔 트롯가수 김수찬, 별사랑 등이 출연한다. 14일 오후 2시30분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다. 장애인 관련 문제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동시에 감동과 힐링을 받았으면 좋겠다. 많이들 오시라.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좌초 우려 여수 경도 관광 개발 동력 살려야

남해안 관광의 핵심 사업이자 여수 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개발사업이 답보상태다. 지난 2020년 6월 착공해 3년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타워형 레지던스 사업이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추진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이 지난해 말 청산하면서 나머지 핵심사업들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경도 개발사업은 1조5000억원을 들여 오는 2029년까지 대규모 호텔·빌라·콘도, 타워형 레지던스, 워터파크·케이블카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미래에셋그룹이 개발사업비의 45.5%(6821억원)를 조달해 추진하는 민간사업이지만 남해안권을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로 조성하겠다는 전남도의 핵심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첫 사업인 레지던스 조성이 '투자'가 아닌 '투기' 논란속에 맨 나중으로 밀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 투자환경도 좋지않아 전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있다.

전남도는 경도 개발사업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법무부에 요청해 지난 4월 종료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3년 연장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일정액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 및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지만 경도의 경우 이번까지 세차례 연장을 했는데도 지난 10년간 투자를 한 건도 받지 못했다.

전남도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경도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좌초 위기의 경도 개발사업을 되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주체인 미래에셋의 사업 추진 의지다. 당장 돈이 되는 레지던스 사업이 미뤄졌다고 미적댈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광주 택시 요금 인상 서비스 개선으로 답해야

광주의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4300원으로 오른다. 지난 2019년 1월 택시 요금 인상 이후 4년 6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택시 기본요금 부담이 30% 이상 늘게 됐다.

광주시는 엊그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중형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1000원(30.3%) 오른 4300원, 모범택시와 대형 승용 택시는 3900원에서 1200원(30.8%) 인상된 5100원으로 확정했다. 대신 단위 요금이 오르는 시간(32초)과 거리(134m) 기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할증 요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광주 법인·개인택시 조합은 중형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모범·대형 택시는 5600원으로 각각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인상 폭을 놓고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 4월 업계·시민·시의회·전문가 50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인상안을 도출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계속돼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시점에서 광주시의 택시 요금 인상은 이례적이다. 기본요금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인 데다 유류·인건비 상승과 승객 감소로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택시 업계의 경영 환경과 근무 여건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생활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택시 요금 인상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택시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서비스가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과거 택시 요금 인상 때마다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지만 승차 거부와 장거리 추가 요금 요구, 과속, 신호위반 등 고질적인 불친절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택시 업계는 이번 요금 인상이 반드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요금은 더 내면서 언제까지 불편만 감수할 수는 없지 않은가.

無 等 鼓

망국적인 투기

정원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는 순천은 경전선과 전라선이 분기하는 철도 교통의 요충지다. 1897년 10월 목포에 이어 1923년 4월 여수가 개항, 1930년 7월 광주에서 여수로의 철도(광여선)가, 1936년 12월에 이리에서 여수까지의 전라선이 개통하면서 순천의 중요성은 날로 커졌다. 1930년대 4개 주요 도로 노선이 지날 만큼 순천은 교통의 거점으로 성장·발전하고 있었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것은 1936년 6월 조선총독부 철도국 산하 호남지역 철도사무소의 유치였다. 광주, 목포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순천은 일약 대전을 제치고 식민지 조선의 4대 도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순천 조곡동 일대에 관사 100여 채와 순천역 등 77동의 철도 관련 건물들이 들어섰다.1936년 인구 증가율은 무려 9.72%에 달했다. 순천의 도약과 함께 몰려든 것은 전국의 토지 브로커였다. 땅값이 이상 급등하고 투기(投機)가 만연했다.

19세기 유명한 미국의 거상 케네(R. Kene)는 "인생은 투기이고, 투기는 인간과 함께 탄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로마시대 그라쿠스 형제는 부실하게 지어진 인슐라(공동주택)에 화재가 나면 최대한 늦게 불을 끄도록 하고, 거래가를 낮춰 사들인 뒤 리모델링해 되팔아 큰 수익을 거뒀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버블(tulip bubble), 즉 튤립 꽃의 구근에 대한 과열 투기 현상도 발생했다. 이를 사람들은 최초의 금융 투기라고 부른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다. 다만 정상적인 국가라면 범위를 벗어난 이들의 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투기가 만연해지는 분위기를 경계하며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시행해왔다는 것이다. 만약 사사로운 욕심이 아무런 규제없이 실현된다면 일상이 도박판처럼 변질되고 그 피해는 가장 약한 고리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공직자, 정치인들도 부동산, 가상화폐, 주식 등 투기에 나서고 있다. 쉬는 시간에 짬을 내 '재테크'를 한다지만 거액의 돈을 건 그들의 머리에 지역민, 국민이 있을 리 없다. 망국적인 투기 만연을 이대로 둘 것인가.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